

시인의 마을

그렇게 사과는 빨간디

그렇게 사과는 빨간디  
사과도 그렇게 빨갛게  
익어가는디  
순남이 불기찍은 왜 이리 붉은  
가  
무슨 시인인가  
불어오는 소슬한 바람이  
웃기를 여미게 하다가도  
방긋 웃는 태양을 피하기 어려  
워  
은음으로 검게 그늘리며  
맛깔을 톤다  
시인의 마을에는 그렇게  
그렇게 가을이 온다  
미자네 대추도 입을 타고 붉게  
익어가고  
동수네 담쟁잎 늙은 호박이  
여그 저그 티를 잡았다  
학중이네 담벼락엔 당당한  
꼭자락 포도송이 간들간들  
바람에 흔들리고  
그 아래서 민수네 뽕개가 오줌  
을  
걸기며 영영표시에 환창이다



박여범

음북중학교 · 시인  
문학박사 · 문학평론가

벌초 다녀온 할아버지 친  
목소리에 숨이 넘어갈 때가 되  
면  
밥 타는 냄새 동네 가득 채운다  
골목길 누비던 때 곡 을 줄줄  
흐르는 경숙이가 합창 컷물을  
들어킨다  
그렇게 사과는 빨간디  
사과도 그렇게 빨갛게 익어가는  
디  
아름드리 느티나무 아래  
신발은 여섯인디  
스물에서 여섯을 빼면 열넷은

언제 심었는지 알 수 없다  
마루나무가 등당하게 터트대간  
되고  
책과 음악을 감상하던 동원이는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사과는 오늘도 빨갛게  
익어가는디  
그렇게 사과는 빨간디  
-박여범 시인, 그렇게 사과는 빨  
간디, 전문-

(詩를 담다)  
과일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

다. 다양한 과일을 즐겨 먹는다.  
사과, 배, 복숭아, 자두, 귤 등 그  
가짓수는 다양하다.  
신부살이라고 우리 땅에서 생산  
된 제철에 나오는 우리 농산물이  
최고다.  
다양한 비타민과 당분을 흡수할  
수 있어 기분이 좋게 만드는 효과  
도 있다.  
우연히 마주친 사과나무에 주렁  
주렁 빨갛게 익어가는 녀석에게  
반해버린 날이 있다.  
시인의 마을에는 그렇게 그렇게  
가을이 오고 있다. 소슬한 바람과  
담장을 넘는 꾀거리의 풀매 지팡  
에도 나의 과일 사랑은 일렁다식  
이다.  
빨간 사과를 통해 만날 수 있는  
순남이, 미자, 동수, 학중이, 민수,  
친 목소리의 할아버지와의 추억  
이 파노라마가 된다. 그렇게 사과  
는 빨간디, 가장 보고픈 동원이  
언제나 이십 년 세월 속에 덩달아  
익어간다.

사설

생활 속 친일음악 문제

우리 주변의 생활 속 친일 음  
악이 여전히 논란거리다. 상당  
수의 친일 음악인들은 일본 제  
국주의를 칭송하는 음악을 작곡  
하고 지휘했다. 친일 인명사전  
에는 안익태와 홍난파 그리고  
현제명도 들어있다.  
일제 때인 1938년에 작곡된  
'에렌라쿠'는 일본 천왕이 등  
극할 때 마다 찬양하는 곡이다.  
안익태는 이 작품으로 유럽에서  
공연 활동을 했다.  
그는 당시 국제적으로 일본을  
대표하는 음악가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  
특히 일제를 찬양한 곡에서  
'애국가'를 따왔다. 애국가의  
가사는 이미 1907년 어느 애국  
지사에게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  
러나 멜로디가 없어서 '올드팬  
시인'에 대충 붙여서 불렀다.  
그 뒤 안익태가 멜로디만 붙인  
것이다. 안익태의 애국가는 해  
방될 때까지 한국의 노래가 아  
니었다.  
안익태의 멜로디가 들어갔다  
는 사실만으로도 정통성이 상당  
히 훼손되는 일이다.

홍난파의 동요 '고향의 봄'  
'낮에 나온 반달'은 가사의  
운율이 모두 왜색이다. 그의  
'봉선화'도 민족의식을 교묘시  
키는 곡이라서 일제에 의해 금  
지되었다고 잘못 알려져 있다.  
사실 홍난파는 노골적인 친일  
행각을 보였다. 그가 작곡한 일  
제의 '황국신민 정신'을 찬양한  
곡들이 이미 명확히 밝혀져 있  
다.  
'일본 정신과 정서에 입각한  
작품이 나와야 한다'는 요지의  
가사가 대한매일신보 1940년 7  
월 7일자에 실려 있다.  
조선총독부의 여러 관변 단체  
에서 요지를 달았다는 것도 문  
서로 명확히 남아 있다. 그밖에  
'희망의 나라'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희망의 나라에서 '나라'는 바  
로 일본 제국주의 국가를 가리  
키는 말이다.  
이런 노래는 일제 강점기 때  
조선총독부가 허락하지 않으면  
장악이나 보급 자체가 불가능한  
노래들이다. 친일 음악부터 철  
저히 청산해야 할 때이다.

독자재언

화재예방의 첫 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세요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  
이나 친척들에게 감사의 선물을 준  
비하느라 분주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번 명절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어 고향 방문이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29일 오후 12시 37분경  
주택 벽면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  
분전함에서 검은 연기와 화염이 발  
생되는 것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  
한 후 보관 중인 분말소화기 2대와  
이웃집 소화기 2대를 이용해 초기  
진압을 시도하여 불길을 잡는데 성  
공했다.  
이처럼 화재초기 시기적절한 소화  
기 사용은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  
를 보호하는 역할을 100% 충실하게  
수행했다.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  
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소화기는 1대, 단독경보형감  
지기는 구획된 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화재  
의 확산을 막아 줄 뿐만 아니라 화  
세가 크지 않을 경우, 불을 완전히  
 끌 수도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부엌, 거실 등 천장에 설치하는 소  
방시설로 연기 감지 시 경보를 울  
림으로써 주택 내 사람들에게 화재  
발생을 알려 신속히 대처할 수 있  
도록 도와준다.  
이번 추석에는 예고없이 일어날  
수 있는 화재에 소화기와 단독경보  
형감지기를 선물하여 언제든 나와  
내 소중한 가족에게 화재예방을 어  
렵지 않게 실천하여 보자. 추석 연  
휴 기간에는 한 건의 화재도 발생  
하지 않는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길 기대해 본다.  
허영민고청소방서 방호구조과소방장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베트남 기자 "봉쇄로 9주째 집에 못가요"



지난 13일 베트남 불따우에서 AP통신 기자 하우딘(오른쪽)이 동료로부터 머리를 깎  
고 있다. 단 기사는 지난 7월 연휴에 하노이에서 출발해 휴양지인 불따우에 도착했으  
나 그때침 급증한 델타 변이로 베트남 절반이 봉쇄되면서 9주 동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다. 한국  
의 소득 대체율은 39.3%이다.  
은퇴 전에 100만원을 받았다면  
은퇴 후에 39만원만 연금으로  
받는다는 의미다.  
이는 OECD 평균 52.9%와 큰  
차이가 있다. 덴마크의 경우 평  
균 소득의 50%를 버는 저소득  
자의 소득 대체율이 123.4%에  
달한다.  
은퇴 전에 일해서 받은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연금으로 123만  
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한국은 낮은 소득 대체율, 저  
조한 퇴직연금 가입률 등으로  
노인 빈곤율이 높을 수밖에 없  
다. 한국은 이미 2000년에 고령  
화 사회로 진입했다.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  
율이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  
로 규정한다.  
그리고 14%가 넘으면 고령 사  
회로 분류된다. 2010년 한국의  
고령 인구 비율은 11%이다. 장  
수는 분명 축복이다. 그러나 돈  
이 더 필요하게 된 것이다. 100  
세를 산다고 가정하면, 취업 후

20년 남짓을 일해서 번 돈으로  
은퇴 후 50년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연금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연금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개  
인은 개인대로 적은 연금을 받  
아서는 살 수가 없다. 든든한  
연금 혹은 개인의 능력이 없  
다면 오래 사는 것이 오히려 재앙  
이다.  
은퇴 후 여유 있는 생활을 즐  
기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  
다. 고령화 사회에는 개인의 자  
산 관리가 점점 더 중요해진다.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는 한정되  
어 있다.  
그러나 소비생활은 평생에 걸  
쳐 이루어진다. 노년기에는 은  
퇴로 소득이 중단되지만 지출은  
꾸준히 이루어진다.  
100세까지 살게 된다면 수입이  
없이 약 40년 이상 지출을 하려  
서 살아가야 한다. 노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먼저 노인  
빈곤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  
하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